

“경찰서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10명이나 도망가나”

월곡지구대, 도박혐의 베트남인 체포 현행범 회의실 창문으로 도주 “피의자 관리 지침 재교육 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도박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들이 경찰 조사 과정 중 집단으로 탈주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의자 대기 중 수갑·전담 감시 인력 등이 전무했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로 올랐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앞두고 있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10명이 회의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앞서 광산경찰은 이날 오전 3시께 ‘월곡동 한 주택에서 집단 도박을 한다’는 신

11일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외국인들이 도주에 이용한 회의실 창문이 열려있다. **뉴스**

고를 받고 다목적 기동대·지역 경찰 등 15명을 급파, 베트남인 총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베트남인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통제에 잘 따르자 이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경찰은 신원 확인 등 기초 조사를 위해 베트남인 전원을 월곡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공간이 넓은 1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회의실에는 도주 방지를 위한 감시용 CCTV·창살 등은 없었다. 또 감시 인력도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월곡지구대에서는 지구대 1개 팀·광산서 지원 병력 등 12명이 피의자 23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피의자들이 소홀해진 감시 상황을 이용, 지구대를 탈출하면서 발생했다. 이 회의실에는 바깥으로 밀면 16cm가량 열리는 창문이 있었는데,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 10명이 벌어진 창틈으로 머리·몸통 순으로 집어넣어 빠져 나갔다.

경찰은 임의동행을 마친 오전 5시40분 이후 약 1시간의 조사 과정 중에도 회의실 안에 있던 변동 인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 외국인 피의자 상당수가 사라진 오전 6시40분께야 집단 탈주를 파악, 이들이 붙잡힌 곳 일대를 중심으로 형사 90여명을 동원해 추적을 나섰다.

달아난 10명 중 6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제추방을 두려워한 피의자들이 오전 6시25분께부터 약 10분간 집단 탈주를 강행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한 명씩 회의실 밖으로 불러내 신원과 도박 자금 규모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기 과정에서 별다른 조짐이 없었다. 좁은 틈으로 나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동남아인들의 신체가 왜소하다 보니 (탈출이) 가능했던 것 같다.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작합 관계자는 “지구대는 대기 규모가 작다. 그렇다 보니 다수의 피의자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한쪽 사무실에서 대기시키곤 한다. 그러나 23명의 피의자가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인력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담당 경찰이) 감시 태세를 푼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 언어적 소통 등 당시 지구대가 (안쪽에) 신경 쓰지 못할 만큼 어수선했던 것으로 보

인다. 규정은 있으나 적절한 인력 배치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몹시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전문가들은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발생한 지구대 피의자 도주 사건에 피의자 관리 지침의 현장 경찰관들의 재교육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같은 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도주한 사례가 있었다. 불과 1년 사이에 개인에서 집단으로 도주 사고가 확대됐다”며 “피의자 유치·호송·수사 지침에는 피의자가 도주·극단적 선택·폭행 등을 가할 염려가 있어 보일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도주 시 경찰관들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의자 관리 지침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日 강제징용으로 희생 지역민 4693명”

다케우치 日 역사연구가 광주 방문 사망자 명부 시민모임에 전달 한·일 역사왜곡 행보에 ‘유감’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쟁과 노동에 강제 징용됐다가 끝내 희생된 광주·전남 지역민이 4693명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 보관중인 유골 중 신원이 확인된 전남 사망자 6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을 연구한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 씨가 11일 광주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만나 강제징용 사망자 명부를 전달하며 실재를 알렸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해군·육군 등에 군인 혹은 노동자로 동원된 이들 중 지금까지 파악된 전남 지역민 사망자는 4143명이며, 민간기업의 탄광, 공장 등 강제노동에 동원된 전남 지역민 사망자는 550여명으로 추산된다. 다케우치씨는 조

선인 사망자 2만명 중 약 23%가 전남 지역민이라고 추정했다.

군인이 아닌 군이나 민간기업의 노동자로 집계했을 때는 전남 지역민이 893명으로 집계된다. 전남 중에서는 보성 출신이 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여수(65), 장흥(62), 장성(58), 무안(50), 영광(49), 순천(48), 고흥(45), 나주(44), 화순(37), 광산(36), 광양(35), 완도(13), 강진(32), 담양(32), 해남(32), 영암(31), 함평(27), 진도(24), 구례(22), 곡성(21), 광주(8), 목포(6)가 있다. 이밖에 장씨개명 등으로 본명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시군이 불명확한 전남의 사망자는 34명으로 알려졌다.

다케우치씨는 또한 미쓰비시광업 운영했던 후쿠오카의 이즈카 탄광에서 일하던 조선인의 유골 중 전남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다케우치씨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 위치한 고쿠라교회에서 재일조선인탄광 희생자나 강제연행대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골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스트리트댄스 팀 경연’ 2023광주프린지페스티벌 스온스앳프린지가 지난 10일 광주 동구 ACC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스트리트댄스 퍼포먼스 경연 청소년부 본선에 출전한 태극 등 국내·외 팀들이 열정적인 춤을 선보이고 있다. **김양배 기자**

보관한 납골당 ‘영생원’에서 6명의 전남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곳에서 사망자 명부와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다케우치씨는 “이 자료를 토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하루빨리 유족을 찾아 유골을 반환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케우치씨는 “현재 일본 정부는 교과서 등에서도 강제노동,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를 빼놓는 등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인정하고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사명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역사 왜곡 세력과 투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화순군 공고 제2023-840호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화순군수

1. 개최목적
○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 6. 30(금) 14:00 ~ 15:00
○ 장 소 :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3층)
3. 계획의 개요
○ 과 업 명 :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 지도작성 용역
○ 과업범위 : 화순군 전지역(1개 읍, 12개 면 786.91㎢)
○ 과업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대상재해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등 8개 자연재해 유형
4.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 화순군 재난안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 2023. 7. 4.(화)까지
○ 의견제출처 : 화순군 재난안전과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우편 및 방문제출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이메일 : lamsaece@korea.kr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061-379-3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의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들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전화, FAX, E-MAIL 중 하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사업명칭
원진1호, 화순광은2호, 지원, 행복1호, 정민3호, 다현, 윤정2호, 지아, 화순영동, 다경, 소망1호, 미성2호, 고복아삼, 다은4호, 화순투어, 비제이1호, 리원1호, 천사5호 태양광발전사업
2. 발전소의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연둔리 441, 443, 445, 446, 448
3. 발전소의 면적 : 12,235㎡
4.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설비용량 : 99.20KW * 18개소
- 사업개시예정일 : 2023년 12월
- 사업운영기간 : 2023년 12월 01일 ~ 2043년 11월 30일
5. 발전사업허가신청자
- 천사5호태양광발전소 대표자 홍현욱 외 17개소
6. 의견제출기간
- 2023년 6월 12일 ~ 2023년 6월 19일(7일간)
7. 의견제출방법
- 전화 062-710-3113
- FAX 062-710-3114
- E-MAIL : sweng3113@hanmail.net

채권신고공고(제1회)

본 농업회사법인 삼인 주식회사는 2023년 6월 9일 주주서면특별결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6월 12일
농업회사법인 삼인 주식회사
(204911-0017256)
전남 고흥군 대서면 봉두로 450-13
청산인 반경진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3-단1013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오순열(570307-2*****)
최후주소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들길 179
(대기리)

위 망 오순열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28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6월 12일
공 고 인 : 정금례
한정승인 수리일 : 2023년 6월 5일
공고기간 : 2023. 6. 12 ~ 2023. 8. 11.